

사회

영·유아 호흡기 질환 '비상'

광주, 폐렴·폐질환 등 발생 급증
"장난감·유아용품 위생관리 철저"

올 겨울 영·유아의 폐렴 등 호흡기 질환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에서 유행한 호흡기질환의 원인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수집된 호흡기환자 검체 117명 중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espiratory syncytial virus)가 30.8%, 코로나바이러스가 8.5%, 신종플루가 7.7%, 아데노바이러스가 6.8%, 라이노바이러스는 5.1% 순으로 확인됐

다. 이 가운데 검출률이 가장 높은 RSV는 지난해 11월 10% 미만(월 평균 100명 중 10명 미만)이었지만, 12월부터 18.6%(113명 중 20명)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30.8%(117건 중 36건)까지 증가했다.
RSV는 주로 2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염되며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과 같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추운 동절기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초기 재채기로 시작해 코막힘, 콧물, 인후통 등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폐렴이나 중증 폐질환 등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RSV는 감염력이 매우 높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며, 장난감이나 유아용품 등 주변 생활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으므로 환자발생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유아용 컵뚜껑이나 식기, 칫솔, 수건 등 개인 위생용품에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수칙이다"고 조언했다.



안중근 장군 순국 100주년 천도제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는 11일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모형 청사 앞 안중근 장군 동상 주변에서 '안중근 장군 순국 100주기 특별 천도제 및 초혼도 봉헌식'을 가졌다. 초혼도 봉헌식은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가 지난달 28일 안중근 장군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다롄 뤼순 감옥 뒷산에서 초혼제를 지내고 국내로 가져온 흙을 안중근 동상 기반 안에 봉헌하는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Today's weather forecast for Jeonnam and Gyeonggi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precipitation, and wind speed data for various cities.

신임 광주 고법·지법원장 인터뷰

"품위있고 신뢰받는 법원 만들겠다"

정갑주 고법원장



"법정언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품위있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정갑주(56) 광주고법원장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법원 직원들의 언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정 영상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39세 판사의 69세 노인에 대한 '버릇없다' 발언과 관련, "법정언행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항상 조직 전체를 시그리프하는 것은 소수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자신의 재판과정을 스스로 보는 단독 모니터링, 다른 법원과 함께 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법정 커뮤니케이션이 품위있고 기품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려면 법원과 국민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법관들은 당사자, 특히 소외받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이전 법원도 법률 시장 개방화에 대비해 선진 외국 법의 법률과 사법제도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공판 중심주의와 구술 심리주의 강화 등을 통해 사법 선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법원장은 이날 광주고법원장에 취임함으로써 제주지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법원장과 이어 광주고법 관내 지법원장 등 재판연구관, 광주고·지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겸손한 자세로 균형잡힌 판결 노력"

안영률 지법원장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균형 잡힌 판결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안영률(53) 광주지법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국민에게 온전히 평가받기 위해서는 법관 모두가 겸손함과 균형각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법원장은 "법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달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온전한 신뢰 확보를 위해선 법원의 진정성이 성실하고 겸손한 언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이 공정하더라도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성취한 정의도 결국 '반쪽'에 불과하다"며 "겸손하면 모든 일이 더욱 잘 보이는 만큼 법관 모두가 겸손한 봉사자로서의 덕목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법원은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 기관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균형각각

있는 판단을 통해 '법원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법원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앞장설때 지역의 선거품도도 개선될 수 있다"며 "선거사전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통해 재판 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안 법원장은 경기도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사 21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실향민·새터민·이주여성
광주서 합동 차려

살을 맞아 실향민과 새터민, 이주여성 등이 합동 차례를 지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청년회(회장 박인성)는 12일 낮 12시 광주시 북구 두암 3동 주민센터에서 '살맛이 고향을 잃은 사람을 위한 합동차례'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새터민 20명을 포함해 실향민, 이주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차례는 차례상 차리기, 떡국 나누기 등으로 진행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hyung Real Estate, featuring a model townhouse and various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angwul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like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Sunwon Real Estate, highlighting a 230-person hall and various commercial and residential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rmation.